

## 정신장애인 주거서비스의 방향성 고찰 -전문가 FGI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rection of Housing Services for People with a Mental Illness - Focused on Expert FGI (Focus Group Interview) -

오유라<sup>1)</sup>, 이승연<sup>1)</sup>, 이은지<sup>1)</sup>, 박슬기<sup>1)</sup>, 황사라<sup>1)</sup>, 손지훈<sup>2,\*)</sup>

Y.R. Oh MSW, S.Y. Lee MSW, E.J. Lee MSW, S.K. Park MSW, S.R. Hwang MSW, J.H. Sohn MD, Ph.D

#### 초록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 주거서비스가 당사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신장애인 주거서비스 현주소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방법** : 정신장애인 주거서비스 현주소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이기에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 집단 FGI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2018년 9월 7명의 정신건강 관련 학계 및 현장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각 회기별로 2시간씩 총 3회 진행하였다.

• **연구결과** : 본 연구결과와 주거서비스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크게 주거서비스의 문제점, 역할, 방향성, 체계구축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주거서비스의 문제점에는 서비스의 분절성,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제공이 있었고, 주거서비스 역할은 일상생활기술의 습관화로 하위범주를 구성하였다. 또한, 주거서비스의 방향성으로는 당사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주거서비스 역할 구분의 필요성, 지원주택 유형 추가로 하위범주를 구성하였다. 이와 함께 주거서비스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체계구축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현재 주거서비스의 분절성,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제공의 문제를 중심으로 보았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당사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과 지원주택이라는 선택지 추가, 주거서비스 체계 구축이 제시된 바 있었다. 즉, 주거서비스 공급자 관점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거서비스 체계구축의 필요성을 볼 수 있다. 또한, 당사자 관점에서의 효과성을 위해 주거서비스 유형의 다양화와 주거서비스 간의 역할 구분이 체계 구축을 통해 일원화 되어 제공될 필요가 있겠다.

• **주요용어** : 병렬형 주거서비스, 서비스의 분절성,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체계 구축

#### Abstract

• **Objective** : The study identifies the current state of housing services for the people with a mental illness and suggests the direction of future development in order for the housing services for people with a mental illness to properly serve and prove options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parties..

• **Methods** : The use of FGI on a group of mental health professions was considered suitable as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and future direction of the housing services for people with a mental illness. Thus, in September 2018, 7 mental health-related academics and field experts were recruited. There were 3 sessions held in total, each of which lasted for 2 hours.

• **Results** : As a result, we were able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and the future direction of the housing services according to problem, role, direction and the system building of the housing services. In detail, the problems with housing contained service segmentation, provider-centered service provisions, and the sub-category of the role of housing services consisted of the habituation of daily life skill. Also, as for the direction of the housing service, sub-categories were set by providing services tailored to the needs of the parties, the necessity of dividing the roles of the housing services, and the supplementation of the types of supportive housing. Moreover,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system has been suggested for the efficient and effective operation of housing services.

• **Conclusion** : The school-based post-suicide intervention program, "Comforting with Hope," indica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self-reported stress, depression, and the suicidal ideation of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school-based suicide,

1)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Seoul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2)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Public Health Medical Service)

+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 : E-mail (eliarde@naver.com)

and the study suggests that "Comforting with Hope" provides not only 'recovery from the trauma' but also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growth'.

• **Keyword** : Parallel housing service, Service segmentation, Supportive housing, System building of housing services

## I. 서론

1950년대 세계적으로 정신장애인의 ‘Community care’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사회보호 관련법 제정과 함께 지역사회보호의 움직임이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는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개입 방향이 시설의 입원치료에서 지역사회보호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보호를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정신건강복지법)」이 제정되었고, 이는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 7항에 의하면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복지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받는다라는 조항이다. 이에 따라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주거지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정신장애인 개인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주거’에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변은경&윤숙자, 2010; 이병화 외, 2017). 대표적인 이유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장애인 당사자 욕구보다는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에서 주거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서재호, 2008; 강해규, 2008; 양난주, 2010). 이외에도, 주거서비스를 선택하려면 보다 많은 선택지가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주거서비스 형태가 공식적으로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정신장애인 당사자 욕구에 맞춘 주거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배은미&박희정, 2017; 이용표 외, 2014;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2014; 홍선미, 2017).

또한, 정신장애인 당사자 욕구에 맞춘 주거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은 최근 서울시 조례 통과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최근 서울시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2017.06.29.)’,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8.04.06.)’,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약칭:주거약자법, 2018.06.29.)’을 마련함으로써, 정신장애인 주거 관련 욕구에 주목하였고, 관련 조례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또한, 외국의 경우 정신장애인의 개별 욕구가 잘 반영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영국은 그 체계를 보다 잘 구축하였다.

이에 영국은 정신장애인에게 주거와 함께 관련된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Supporting People(SP)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도

Community Care라는 명칭 하에 정신장애인 중 독립적인 생활 가능자에게 영구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주 단위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홍선미, 2017; 이병화 외, 2017). 물론, 모든 국가들이 지원주택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체로 지원주택을 시행하지 않는 국가들은 복지에 대한 민원과 욕구를 일원화된 창구에서 접수받으며 이에 대한 서비스를 연계 및 협력하고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의 개별 욕구 및 독립생활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서비스의 일원화된 창구가 없으며,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단절성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주거서비스의 현주소를 정신보건 관련 전문가 집단의 FGI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정신장애인 욕구에 맞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거서비스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배경

### 1. 영국의 주거서비스

영국의 주거서비스는 ‘거주배치서비스 제공에 관한 지방정부의 의무(Duty of local authorities to provide accommodation)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주거서비스를 가진 자의 욕구가 인정되면 영국의 경우 기존에 NHS(National Health Service)의 의료서비스와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과(SSD)를 통하여 제공된다. NHS와 SSD가 각기 다른 경로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복지서비스는 공동위원회(Joint Commision)라는 공통적인 경로를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된다. 특히, 정신질환과 관련된 전문적인 치료는 지역 내 복지서비스를 총괄하는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과(SSD)와의 협력 하에 정신보건 트러스트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담당자들이 NHS 사무실을 함께 쓰면서 업무공유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체계로 운영되는 영국의 주거서비스는 아래 <표1>과 같은 지역사회 주거 유형을 가지고 있다. <표1>을 보면 영국의 주거서비스는 대상자의 욕구에 맞추어 제공됨을 볼 수 있으며, 욕구에 맞는 주거서비스 단계가 설정되어 있는 것 또한 볼 수 있다(홍선미, 2017). 따라서 영국은 주거서비스가 제공되기 전 정신장애인의 현재 상태 및 필요한 서비스, 욕구 등을 개별적으로 사정한 후 각 수준에 맞는 주거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에 1단계는 독립된 거주지와 함께 외부의 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형태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지원주택이라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으며,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사회에 거주지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받는 것이 특징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형태의 주거서비스가 없어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며, 최근 서울시 주거약자법 조례가 통과되면서 관련된 사업들이 법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 지고 있다. 다음 2단계는 단지 내 개별 아파트에 거주하되, 독립주거 지원 직원이 함께 거주하는 형태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독립주거형 공동생활가정인 돌봄사랑채와 유쾌한집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다. 3단계는 공동주거에, 직원과 함께 거주하는 생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공동생활가정을 떠올릴 수 있겠다. 마지막 4단계는 시설형, 훈련형으로 건물 내 개인별 공간이 있으며, 공동식사하며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형태로, 정신요양원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표 1〉영국의 주거서비스 유형

| 유형  | 주거 분류       | 내용   | 비고(국내)                |
|---|-------------|--|-----------------------|
| LEVEL1<br>독립주거 및<br>지지적 주거<br>(supportive<br>housing) | 개인 주택       | 독립거주지 +<br>외부의<br>지원서비스  | 재가장애인                 |
| LEVEL2-3<br>지원주거<br>(supported<br>housing)            | 공동주거        | 단지 내 개별<br>아파트<br>(침실, 거실,<br>주방, 욕실)<br>+ 독립주거 지원<br>직원             | 공동생활가정,<br>주거제공시설     |
| LEVEL4<br>주거제공시설<br>(residential<br>care)             | 시설형,<br>훈련형 | 건물 내 개인별<br>공간<br>(침실, 욕실,<br>간이주방)<br>+공동식사 +<br>일상생활지원/<br>요양보호 직원 | 장애인거주시설,<br>정신장애인요양시설 |

자료: 홍선미, 2017

종합하면, 영국의 주거서비스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개별적인 사정을 통해 그에 맞는 주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그 형태가 우리나라보다 다양하여 지원주택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 모든 서비스가 파편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 관리로 운영되고 있다.

## 2. 미국의 주거서비스

미국은 1960년대 이후 주 단위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1990년대 이후부터는 서비스 주체가 주정부에서 지방정부로 행정과 재정 책임을 이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서비스 주체의 이전은 입원치료를 줄이고, 지역사회 기반의 복지 서비스로의 정책 이전을 의미하기도 한다(이병화 외, 2017).

따라서 미국의 경우 주단위로 운영하는 복지사업이 매우 상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주거서비스를 보면 다음 〈표2〉와 같다. 주거서비스 유형들로는 숙박시설(beard and care home), 중간주거시설(halfway house), 그룹홈(group home), 위탁가정(foster or family care home), 지지주거(supportive housing), 독립주거(independent housing)가 있다.

먼저 숙박시설의 경우 공동생활을 하고 식사와 약물관리가 직원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치료진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병원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은 우리나라의 정신요양원과 비교해서 볼 수 있겠다. 다음 중간주거시설은 퇴원 이후 지역사회에 처음 거주하게 되는 시설로 모니터링을 받는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전환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있겠다. 그룹홈은 공동생활을 하며, 직원이 함께 거주하는 형태로 24시간 내내 감시를 받는다. 위탁가정의 경우 환자 자신의 가정이 아닌 일반 가정에 함께 지냄으로써,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형태는 거의 볼 수 없다. 지지주거는 일상생활기술,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시설로, 취업훈련을 비롯한 프로그램과 사례관리를 받는 곳이다. 마지막으로 독립주거는 일반주택에 거주하면서, 이용하고 싶은 복지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 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원주택의 개념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표 2〉미국의 주거서비스 유형

| 유형                                | 내용   |
|-----------------------------------|--|
| 숙박시설 (beard and care home)        | -공동생활<br>-식사와 약물관리<br>-치료진의 관리 감독 받지 않음                      |
| 중간주거시설 (halfway house)            | -병원 퇴원 이후 지역사회에서<br>거주하게 되는 주거센터<br>- 모니터링 받음                |
| 그룹홈 (group home)                  | - 공동생활<br>- 24시간 내내 관리 감독                                    |
| 위탁가정 (foster or family care home) | - 환자들은 그들의 가족 이외의<br>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곳                          |
| 지지주거 (supportive housing)         | - 일상생활기술, 사회적응을<br>돕기 위한 시설<br>- 취업훈련을 비롯한 프로그램과<br>사례관리를 받음 |
| 독립주거 (independent housing)        | - 일반주택 거주<br>- 다양한 서비스 이용                                    |

자료: 권순수, 2010

종합하면, 미국 역시 다양한 주거서비스 종류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그만큼 지역사회에서 선택할 수 있는 주거서비스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의 경우 왜 독립주거를 시행하는지 그 목적과 철학을 의미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의 흐름에 맞추어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함께 소비자적인 측면에서의 선택과 욕구가 잘 충족되어야 함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주 단위로 정서적·신체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제공해주는 것과 함께 대상자의 욕구에 맞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분은 향후 우리나라의 주거서비스 발전에 고려해야 할 요소로 볼 수 있겠다.

## III. 연구방법

주거서비스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고찰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정신건강 관련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의 FGI가 현재 주거서비스의 문제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탐색하기에 적절한 방법론이라고 판단되었다. 이에 아래 〈표7〉와 같이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FGI를 진행하였다.

〈표 7〉FGI 구성원

| 연구참여자 | 성별 | 연령  | 학력    | 전공    | 직위            |
|-------|----|-----|-------|-------|---------------|
| 전문가1  | 여  | 50대 | 박사 졸  | 간호학   | 교수            |
| 전문가2  | 여  | 40대 | 박사 졸  | 사회복지학 | 교수            |
| 전문가3  | 남  | 30대 | 박사 수료 | 의학    | 센터장           |
| 전문가4  | 여  | 40대 | 석사 졸  | 사회복지학 | 상임팀장          |
| 전문가5  | 여  | 30대 | 석사 졸  | 사회복지학 | 팀장            |
| 전문가6  | 여  | 40대 | 석사 졸  | 간호학   | 공동생활가정<br>시설장 |
| 전문가7  | 남  | 50대 | 석사 졸  | 사회복지학 | 종합시설관장        |

FGI는 2018년 9월에 진행되었으며, 각 회기별로 2시간씩 총 3회기 진행하였다. FGI 진행에 있어 질문은 “주거서비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와 함께 “현재 주거서비스의 문제점,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1차 회의는 전문가2, 전문가4와 진행하였으며, 2차 회의는 전문가1, 전문가3, 전문가4, 전문가5, 전문가7과 진행하였다. 마지막 3차 회의는 전문가6과 진행되었다. 회의는 모두 녹취되었으며 이는 사전에 동의되었다.

## IV. 연구결과

“주거서비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현재 주거서비스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진행된 FGI의 분석의 결과는 크게 4개의 범주로 나누어 질 수 있었다. 이는 주거서비스의 문제점, 주거서비스의 역할, 주거서비스의 방향성, 주거서비스 체계 구축이다. 이에 각 범주별로 나누어 기술하고자 한다.

## 1. 주거서비스의 문제점

주거서비스의 문제점을 또 다시 ‘주거서비스의 분절성’과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제공’ 하위범주로 나누었다.

## 1) 주거서비스의 분절성

‘현재 주거서비스의 문제가 무엇인가요?’라는 포괄적인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저마다 다르지만,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주거서비스의 경우 처음 도입되었을 때 단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전환시설,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기능에 따른 주거 유형을 구분하여 계단식으로 설계되었다. 하지만, 현재 주거서비스가 병렬형으로 나열되어져 있으며 서비스가 분절되어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주거서비스는 정신장애인들이 이용할 때 상위 단계로 올라가지 못해요.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이용하는 주거제공시설의 적응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주거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인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할 수 있겠어요? (전문가2)”*  
*“주거서비스가 욕구에 맞춘 단계적 설계라고 하더라도, 현실은 병렬적으로 나열되어져 있고 각기 다르게 작동하니 분절되어져 있을 뿐이죠. (전문가1)”*

## 2)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제공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서비스에 대해 물었을 때 주거서비스의 분절성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중으로 이야기 나온 것이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제공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용자가 주거서비스를 선택 하는 게 아니고, 공급자 위주로 제공된다고 볼 수 있죠. (전문가2, 전문가6, 전문가7)”*

*“사실 그게 문제거든요. 우리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평가하죠. 대상자가 일정 수준 기능이 되지 않으니 특정 주거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그런데 그게 문제일까요? 정말로 강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용하지 못하는 주거서비스 라는 게 있을까요? 이런 부분도 우리는 고려해봐야 해요. (전문가2)”*

이를 통해, 공급자 위주로 발전해 온 복지서비스의 역사가 주거서비스에도 고스란히 들어나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는 양적인 확대를 해 감에 있어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현시점 우리나라 주거서비스는 질적 향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소비자 관점에서 서비스를 바라보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항목에서 이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 2. 주거서비스의 역할

주거서비스의 역할로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하위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이것은 주거서비스의 핵심 요소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주거서비스의 역할에 대해 물었을 때, 주거서비스 제공시설을 6년간 운영한 전문가6은 주거서비스의 역할을 비교적 명쾌하게 제시하였다. 이에 본 항목에서는 전문가6이 제시한 주거서비스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거서비스의 핵심 역할과 기능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거서비스란 일상생활 기술이 없는 자들을 몸에 배도록 함께 움직이는 곳이에요. 문단속하는 거, 가스 밸브 잡는 거, 장보는 거,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이런 거부터 시작하는 곳이거든요. 일상생활 기술이 없어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계속 하게끔 해요. 그래서 이걸 습관화해서 주거제공시설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환경에서 습관적으로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 정신장애인 스스로 자립을 하는 거죠. (전문가6)”*

전문가6이 말하는 주거서비스의 역할은 일상생활 기술들을 몸에 배게 훈련함으로써 주거서비스 제공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혹은 다른주거서비스 제공시설로 이동하는 등 환경이 변할지라도 습관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정신장애인의 주거서비스 유형별 역할이 뚜렷하면, 이용하는 당사자는 자신의 기능과 욕구에 맞추어 주거서비스를 이용하고, 궁극적으로 자립이라는 목적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서비스가 자립으로 나아가는 목적이 부재한 채 현재 주거서비스에서의 안주와 적응이 우선시 되다 보니 각 주거제공시설들이 저마다의 역할과 기능을 잃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다음절에서 주거서비스 역할 재정립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3. 주거서비스의 방향성

주거서비스의 방향성은 ‘당사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주거서비스 간의 역할 구분의 필요성’, ‘지원주택이라는 옵션 추가’, ‘주거서비스의 새로운 구분 제시’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 1) 당사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주거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소비자 즉, 정신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전문가2는 우리나라 주거서비스 발전에 필요한 요소는 ‘당사자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당사자 욕구에 맞춘 주거서비스 선택이죠. 자신이 원하는 주거에 살 수 있게끔 하는 거요. (전문가2)”*

전문가2는 더 이상 주거서비스 제공에 있어 공급자 위주의 제공이 아니라,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본인의 기능과 욕구에 맞춘 주거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 2) 주거서비스 간의 역할 구분 필요성

주거서비스 간의 역할 구분은 이전부터 각 주거제공시설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언급되었던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부분은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들 역시 절감하는 부분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되었다.

*“계속 논의되는 게 그런 거 같아요.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제공시설들이 유형별로 있는데 각 역할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 저 는 주거제공시설의 종류를 더 다양화 하는 것 보다 현재 있는 주거제공 시설 간의 역할정립이 더 시급하다고 봐요. (전문가1, 전문가가)”*

정리하면, 현재 주거서비스의 문제점은 주거제공시설인 지역사회전환시설, 공동생활가정, 독립주거형 공동생활가정 등 각각의 역할이 명확해야 그 역할에 맞춘 기능이 작동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주거제공시설 확충이 우선이 아니라, 현재 주거제공시설들 간의 역할 재정립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 3) 지원주택이라는 선택지 필요

주거서비스의 역할 재정립을 하고 나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주거서비스 제공시설 유형으로 정식으로 자리 잡혀 있지 않은 유형이 지원주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참여 전문가들은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원주택이라는 옵션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맞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우리나라도 지원주택이라는 옵션이 확실히 필요해요. 지금 있는 주거제공시설의 유형들은 다 공동생활이 기본 형태잖아요. 그런데 분명 혼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욕구를 반영해줘야죠. (전문가2)”*

*“지원주택이라는 유형이 주거서비스에 분명히 필요한건 맞죠. 하지만 우선적으로 주거제공시설들이 좀 정리되어야죠. 역할 구분 말이에요. (전문가6)”*

*“요즘 지원주택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원주택을 운영하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바로 동료자립지원가예요. 동료자립지원가는 직원과는 또 다르거든요. 자신이 경험한 자립과정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당사자에게 옆에서 코칭 해 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전문가7)”*

*“지원주택의 개념을 우리나라도 잘 정립해야 해요. 단순히 하우스 제공만이 아니란 거죠. 지원주택은 당사자분들에게 단순히 집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보건 사례관리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예요. 이 서비스가 중요한 개념을 구성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전문가2, 전문가6, 전문가가)”*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장애인의 욕구에 맞춘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원주택이라는 선택지가 필요함과 동시에 우리나라만의 명확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언급되었다. 이에 지원주택이 현재 시범적으로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기에 그 핵심 개념을 토대로 우리나라만의 지원주택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 내용으로, 지원주택은 단순히 주택 제공이 아니라 정신건강 관련 사례관리 서비스가 반듯이 포함되어야 함이 제시되었다. 또한, 지원주택의 경우 당사자가 자립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이를 이미 경험한 동료자립지원가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언급되었다.

#### 4) 주거서비스의 새로운 구분 제시

주거서비스의 역할 재정립에 대해 전문가6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중심으로 단계를 나눈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만약에 다시 주거서비스 구분을 재정비한다면, 저라면 이렇게 할 거 같아요. 주거서비스 유형을 3단계로 나누는 거죠. 1단계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기술들을 훈련하는 곳 인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를 훈련시키는 곳이요. 문 잠그는 거, 불 켜고 잠그는 거, 장보는 거,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안 되는 당사자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사람이 해당 주거제공시설을 이용하고 몸에 배도록 훈련시키는 곳을 1단계에 두는 거죠. 그렇다면 2단계는 어느 정도 일상생활 기술을 가진 자들이지만, 대인관계 기술이 없는 자들이 이용하는 주거제공시설로 두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말하는 거, 함께 지내는 거, 소통하는 거, 협력하는 게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거 관련된 것들을 경험하고 훈련시키는 곳으로 기능하는 거죠. 마지막 3단계는 일상생활 기술도 있고, 대인관계 기술도 있는데, 자신을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관리 할 수 없는 자들이 이용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자신이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주체적으로 움직이는지를 훈련시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주거 관련 척도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거고, 이 척도를 기반으로 ISP를 수립하는 거. 그리고 이러한 평가가 당사자가 해당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행동평가를 해야 한다는 거죠. 행동평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몇 달은 같이 살아봐야죠. 몇 달 같이 지내는 곳에서 행동평가를 하고, ISP를 수립해서 단계별 주거제공시설로 이동 시키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전문가6)”*

위의 전문가6이 제시한 주거서비스 역할 재정립은 주거관련 척도를 개발해서 ISP를 수립하는 것과 이에 대한 평가는 “행동” 관찰로 평가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보았다. 이후 일상생활 기술 여부, 대인관계 기술 여부, 주체적인 삶 계획 여부로 단계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4. 주거서비스 체계 구축

주거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의 하위범주로는 ‘주거지원센터의 필요성’, ‘주거서비스 체계의 이원화’, ‘주거서비스 컨트롤타워’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주거지원센터의 필요성은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체계를 이원화할지 일원화함으로써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어졌다.

#### 1) 주거지원센터(가칭)의 필요성

주거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주거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였으며, 현재 파편화되고 분절된 기능을 하고 있는 주거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현재 주거서비스들이 각기 따로 움직이기에, 체계 구축을 위해 주거지원센터 라는 것이 생긴다면 지금보다는 효율적으로 움직이긴 하겠죠. (전문가1)”*

*“그렇죠, 주거지원센터와 같은 체계 구축 시스템이 분명히 필요하긴 하죠. (전문가6, 전문가가)”*

#### 2) 주거지원센터 체계의 이원화

주거지원센터가 생긴다면, 그 체계를 이원화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인용하여 제시한 바 있다.

*“선진국에서는 주거서비스센터가 사실 이원화 되어있죠. 이 이원화는 보통 이렇게 이루어져요. 주택을 관리하는 곳 따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따로.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죠. (전문가2)”*

#### 3) 주거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

한편, 주거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을 제시하는 의견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거지원센터가 이원화될 경우 이원화 된 상태로 분절될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이에 주거지원센터가 모든 주거서비스를 연계 관리하는 통합센터로 작동하는 방식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렇다면 고민이 필요하죠. 우리나라의 경우 이 이원화된 주거지원센터 체계가 잘 작동될 수 있을지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주거지원센터가 컨트롤타워로써 역할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당사자가 해당 센터에 욕구를 표현하면, 여기서 사정하고 평가해서 욕구에 맞춘 주거서비스 제공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여기서 사례관리도 제공하고. 이런 식이요. (전문가3)”*

*“주거지원센터가 생긴다면, 저는 컨트롤타워로써 역할이 더 낫다고는 생각해요. 한 곳에서 모든 주거 관련 서비스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기는 하죠. (전문가6)”*

## V. 결론

본 연구는 주거서비스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살펴봄으로써, 현 시점까지의 주거서비스를 고찰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 내 구성원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함에 있다.

이에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집단을 구성하여 3차례의 FGI를 진행하였고, FGI를 통해 ‘정신장애인 주거서비스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살펴 볼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주거서비스의 경우 주거서비스 분절성과 공급자위주의 서비스 제공이 가장 두드러진 문제로 볼 수 있었다. 주거서비스의 분절성은 각 주거제공시설의 역할 및 기능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주거서비스의 본래 기능인 ‘일상생활 기술 습득을 통한 지역사회 자립’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거서비스가 단순히 정신장애인이 지내는 ‘숙소’에 불과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우려점이 있다. 또한,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제공은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보다는 당사자의 현재 환경적인 조건에 맞는 주거제공시설에 입소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서비스 선택지가 독립생활 보장 없이 대체로 공동생활을 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거서비스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먼저, 당사자의 욕구에 맞춘 독립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주택이라는 주거서비스 제공시설의 유형 추가를 고려해 보는 것이다. 이는 현재까지의 다소 제한적인 주거서비스 선택지가 보다 당사자의 욕구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거서비스의 분절성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주거서비스 체계 구축을 하는 것이다. 주거서비스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주거지원센터(가칭)가 생겨난다면, 주거서비스 유형별 기능 및 역할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주거제공시설의 명확한 역할과 기능에 맞추어 당사자가 원하는 주거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주거서비스 간의 분절성, 역할 및 기능의 모호함,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일 수 있겠다. 물론, 앞으로의 구체적인 체계 및 내용은 추후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주거서비스의 공급자 관점에서의 효율성, 소비자 관점에서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측면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 VI. 참고문헌

강해규. (2008). 사회서비스 확대정책과 지역사회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 비판사회정책, (25), 67-98.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2012). 경기도. 정신장애인의 탈원화를 위한 3년간 의 기록: 주거는 삶을 말한다.

권순수. (2010). 정신장애인의 주거서비스 요구도 및 관련요인. 한양대학교 임상간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순주, & 허만세. (2010). 정신요양시설 정신장애인들이 선호하는 주거서비스 형태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29(1), 7-31.

배은미, & 박희정. (2017). 정신장애인의 지원주거 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1(1), 59-87.

변은경, & 윤숙자. (2010). 정신장애인의 주거 관련요인과 주거서비스에 대한 욕구. 정신간호학회지, 19(1), 85-95.

서재호. (2008).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1), 139-164.

양난주. (2010).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 한국사회복지학, 62(4), 79-102.=

이용표, 정혜경, 박경수, & 김현민. (2014).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정신장애인 주거욕구 및 주거지원체계 수립방안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병화, 하경희, 박예은, & 이미영. (2017). 정신장애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자원 활용 방안. 경기복지재단

홍선미. (2017). 정신장애인의 주거정책 방향 및 과제.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